

제3회 리빙랩과 젠더 포럼 in 원주

사회적경제와 생활운동에서의 여성 리더십,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일시| 2020.12.15.(화)

|장소| 강원 소셜캠퍼스 온 이벤트 홀 (상지대학교 대학원관 2층)

현장참여 & 유튜브 생중계 예정



한국리빙랩네트워크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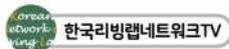
제3회 리빙랩과 젠더 포럼 in 원주

사회적경제와 생활운동에서의 여성 리더십,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 일시 | 2020.12.15.(화)

| 장소 | 소셜캠퍼스 온 강원 이벤트 홀
(상지대학교 대학원관 2층)

현장참여 & 유튜브 생중계 예정



| 신청링크 |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https://forms.gle/f8Umk9bUKf9oUWZj8>)



시 간	세부내용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 김형미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개회사 : 방정균 (상지대 대외협력처장)
1부 · 리빙랩과 젠더 발제	
14:20~14:50	발제1 지역사회혁신 현장의 여성, '오래된 미래'를 보다 신하영(다양성임팩트연구소 대표)
14:50~15:20	발제2 강원 리빙랩 활동의 실제와 여성 참여 양진운 (연세대 원주혁신대학지원사업단 교수)
15:20~15:30	휴식 및 토론 준비
2부 · 토론 및 질의응답	
15:30~16:50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조성기 (원주한살림 이사장) 2. 권현지 (원주 공동육아 소꿉마당 어린이집 교육이사) 3. 우순자 (원주생협 이사장) 4. 김유미 (원주아이쿱 이사장) 5. 김소민 (농업회사법인 일구팔삼 대표) 6. 임소연 (숙명여대 교수)
16:50~17:00	(총평) 리빙랩과젠더포럼, 2021년 포부와 전망 성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7:00~17:10	사진촬영 및 폐회

|주최/주관 한국리빙랩네트워크(KNoLL),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협동사회경제연구원,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위드커뮤니티동조합, 원주아이쿱생협,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후원 상지대대외협력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I 부 : 리빙랩과 젠더 발제

<발제1> 지역사회혁신 현장의 여성, '오래된 미래'를 보다

신하영 (다양성임팩트연구소 대표)

<발제2> 강원 리빙랩 활동의 실제와 여성 참여

양진운 (연세대 워주혁신대학지원사업단 교수)

2020.12.15.
젠더와 리빙랩 포럼 in 원주

지역사회혁신 현장의 여성, '오래된 미래'를 보다

신하영
다양성임팩트연구소 대표
Head
Diversity Impact Lab

새로운 시대 달라진 세계

3 포용적 과학기술, 과학기술로 가능해 지는 포용

- 장애인을 위한 able tech의 영역
- '인간의 온도를 가진', '따뜻한' 기술



<http://www.bloter.net/archives/206546>



<http://www.bloter.net/archives/206546>

4 포용을 위한 혁신은 '접근성 낮추기'가 핵심

- 오픈 하드웨어 : 데이터와 디자인의 자유로운 사용
- 시민사회문제해결을 '낮은 비용' + '쉬운 사용/제작법' 으로



<http://blog.safecast.org/>



<https://news.joins.com/article/23117563>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다양성 부족

다양성 모르면 무능한거죠

▶ '100분 토론'은 왜...

최근의 국제 동향

연말뉴스

나스닥, 상장회사 이사진에 '여성·소수자 포함해야'

종교시간 | 2020-12-02 00:14

강전혁 기자

[여성 1명, 소수인종 또는 성소수자 1명 등 최소 2명 의무화]

나스닥 로고
[포이티-연말뉴스 자료사진]

Biden-Harris Presidential Tra... @Transition46

President-elect Biden and Vice President-elect Harris today announced new members of the White House staff who will serve in senior communications role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se communications roles will be filled entirely by women.

트윗 번역하기

#로컬혁신 #여성 #리빙랩

7

8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혁신,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에 주목해 야 하는가

- 전에 없이 지속가능성, '계속 생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해진 지금 그 대안을 제시할 섹터로 사회의 주목
- 그동안 주변화되었던, 더 많은 사회적 혁신을 만들어낼 주체로서
더 많은 여성주체를 양성할 방안을 모색

젠더연구와 여성주의 인식론에서 사회적경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

-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서 여성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여성주의 경제학을 제시 (홍태희, 2014)
- 여성주의 경제의 비전으로 소액대출,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을 함께 다루면서 그라민 뱅크 같은 '여성 및 사회적약자에 대한 신탁기금과 대출' 모델에 대한 신뢰를 표명(오정진, 2007)
- 여성주의 대안노동의 형태로 사회적기업에서 나타나는 여성노동자들의 행동양식을 소개(김유미, 2011)
- 사회적경제의 현장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손작업, 돌봄노동 등의 여성노동의 재의미화가 가능해짐(이구경숙, 이현옥, 김영정, 2017)
-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는 환경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김경희, 2009)

기존 여성주도 지역혁신과 리빙랩의 차별성

- 사회적경제 내부에서 젠더관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젠더 관점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논의하는 시도들
 - 사회적경제가 여성친화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는 현상이 내포하는 '난처함'을 지적(김주환, 2015)
 - 리빙랩과 사회혁신 사례는 여성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대표성과 당사자성, 전문성을 담지 가능

지역사회혁신 현장의 여성참여 사례

12

강원 사회적경제 전략→강원 리빙랩 방향



‘활력’은 도민 모두가 누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

‘웰니스’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문화 도시를 만들고, 돌봄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

‘생태’는 품격있는 생태환경 유지와 공동체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평화’에는 남북으로 나뉘진 강원도의 현실을 활용하겠다는 뜻

마포여성네트워크

- 성미산 마을 공동체, 마포 사회적경제에서 주축으로 활동
- 마포여성네트워크는 풀뿌리 여성단체로서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실무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대표성을 가짐
- 마포여성네트워크는 마포 지역의 공간을 여성주의 관점으로 재편하는 등, 마포 지역 내 공간과 사업체, 공익활동과 지역상권 운영에 대한 젠더 관점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

마포사회적경제 - 마포여성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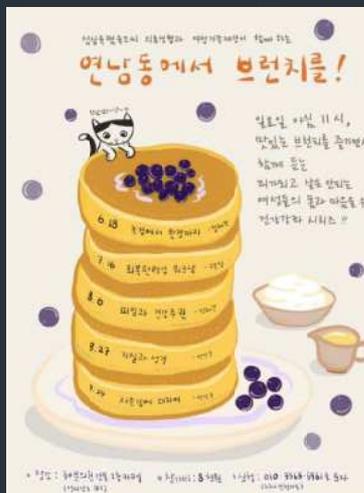
- 마포구 리빙랩 대표적 사례 "여성안심 귀갓길" 지역수요 조사 및 공론화에 기여



마포 여성 네트워크- 마포 지역혁신, 전환사회 추동력



마포 여성네트워크 -젠더 관점의 건강, 공간 재구성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 소규모 마을만들기 자조모임에서 지역사회 에너지 수급 전환을 이루어내기 까지



출처:
<http://3A%2F%2Fjaga.or.kr%2F%3Fp%3D11960&psig=AOvWaw06Zl3ZP3l7H5j5IneHBtYP&ust=1600781652899000&source=images&cd=vfe&ved=2ahUKEwj8otriqrrAhUWhJQKHbseCd0Qr4kDegUIARCAQ>



출처:
<https://3A%2F%2Fskenergy.tistory.com%2F1594&psig=AOvWaw06Zl3ZP3l7H5j5IneHBtYP&ust=1600780652899000&source=images&cd=vfe&ved=2ahUKEwj8otriqrrAhUWhJQKHbseCd0Qr4kDegUIARDJAQ>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 마을공동체, 학부모 모임 → 리빙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 성대골 에너지마을 사례의 특징
 - 리빙랩 관련 주요 키워드의 집합체
 - 지역혁신.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 자원 순환형 에너지 분야 리빙랩 사례
 - 환경과 대체에너지 분야는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약한 정책/혁신/연구분야임
 - 비용이 많이 들고, 단기적 투입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비용의 직접적인 절감 보다는 국가 지원정책, 보조금 제도와의 '똑똑한' 결합이 중요
 - 국가 정책 확산과 함께 성장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출처:
<http://3A%2F%2Fjaga.or.kr%2F%3Fp%3D11960&psig=AOvWaw06Zl3ZP3l7H5j5IneHBtYP&ust=1600781652899000&source=images&cd=vfe&ved=2ahUKEwj8otriqrrAhUWhJQKHbseCd0Qr4kDegUIARCAQ>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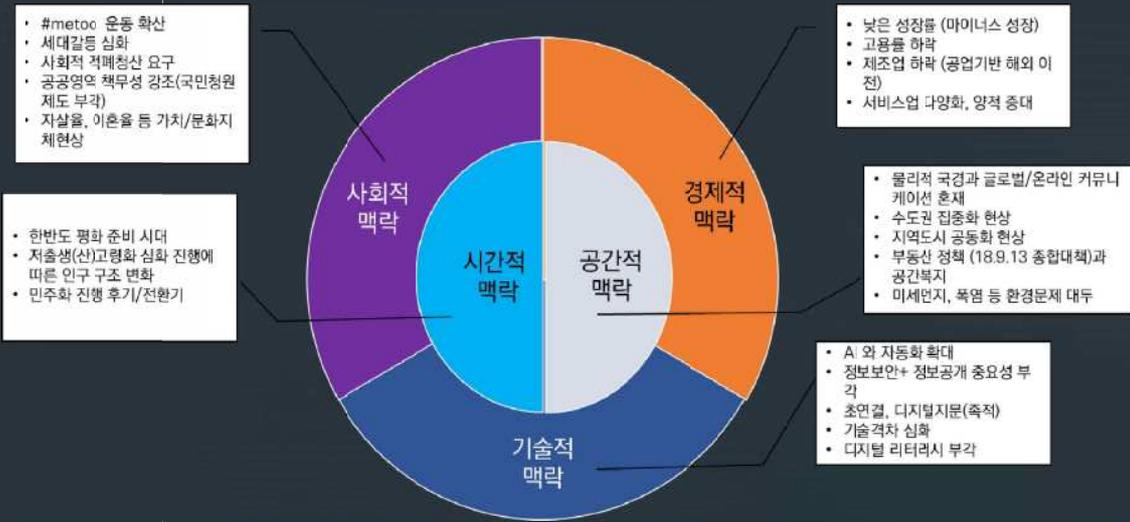
- 성대골 에너지마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에 여성주의 환경운동 단체와 협업을 통한 '내부 강점'으로 리빙랩 활동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이 결정적으로 전환점을 맞이함
- 성대골 에너지마을이 활동과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체제를 갖춘 것은 지역사회 풀뿌리 여성운동을 통한 조직화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함



지역혁신 리빙랩
현장에서 더 많은
여성을 만나려면

한반도 모든 지역: 포용과 혁신이 필요한 현장

시간, 공간, 사회, 경제, 기술 맥락 간 중첩 + 역동적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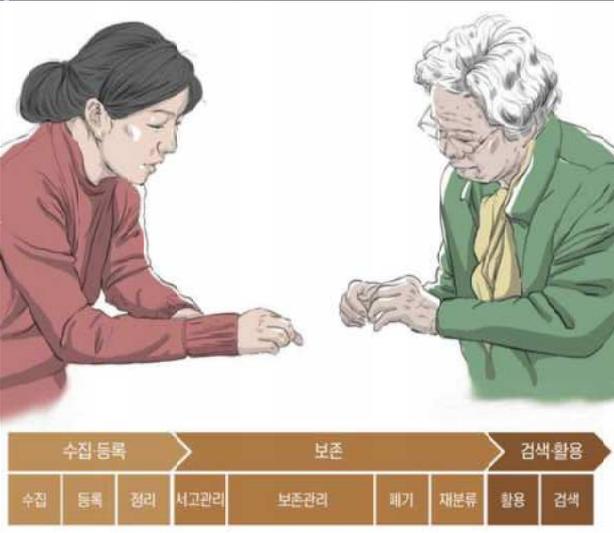


탈원전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생태환경 회복의 주체, '여성'



- 기존 사회구조 생산-소비의 이분법적 구조
 - 가부장제 위계적 구조에 상응
 - 지구 환경의 소진, 파괴를 가져옴
 - 일방향적 에너지 흐름: 소비 후 폐기
- 생태적 사회관계
 - 기존 권력관계 해체
 - 상호이해, 호혜적 관계 (자매애)
 - 공감적 자연 대하기

구술사, 현장 문제를 서사로 재구성해서 진짜 문제를 드러낸다



출처: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12>

- 구술사(narrative)
 - 철학적 기반은 구성주의, 현상학
 - 말하는 이에게 이미 답이 있다
 - 과학적 엄밀성, 일관성에 대한 의문 제기
 - 대표적인 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증언 채록, 이주여성의 디아스포라 경험
- 사회 문제를 재발견, 재정의
 - 행정의 영역보다 생활의 영역에서 들어주고, 말하는 적극적 사례수집자로서 여성이 대두됨

리빙랩 '언니들' 발굴의 의미

-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사회혁신가, 리빙랩 주체들의 행동양식을 역량과 운동전략으로 의미화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 그동안 주변화되었던 안전과 건강의 문제, 존엄의 문제가 재평가되는 시점이 도래
- 지금까지의 지역사회 혁신에 공헌한 여성주체들의 경험이 개별사례들로 표류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저변이 확대되는 전체 맥락에서 온당하게 위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석의 틀을 제공

지역사회 여성 참여 변화의 토대 마련

여성 주체의 리빙랩 확대 가능성

그간 여성의 사회적경제 분야 참여를 가로막던 물리적 요인 상당부분 해결

돌봄 노동 중요성 부각

돌봄위기의 시대, 사회적일자리와 공공형 돌봄 증가

생활 실천에서 생활 경제로

살림이 곧 경제의 문제로 연결되어 가치 창출 인정받아야

자원 유입 구조와 정책전달체계 변화

대표성 문제 해결

공적 자원 (사업, 연구, 개발) 추진 주체에 요구되는 법
인격, 행정 사항 유연화

여성 주체 R&D 영역 전문성 함양 필요

문제 발굴, 논의 참여 이후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콘텐츠, 전문가 멘토링 확대

'지역'에는 더 많은 '언니'들이 필요하다

27

28

여전히 부족한 대표성, 이슈 부각



Contact info: hyshin@gmail.com

감사합니다.

강원 리빙랩 활동의 실제와 여성 참여

- 강원 사는 즐거움



연세대학교
양진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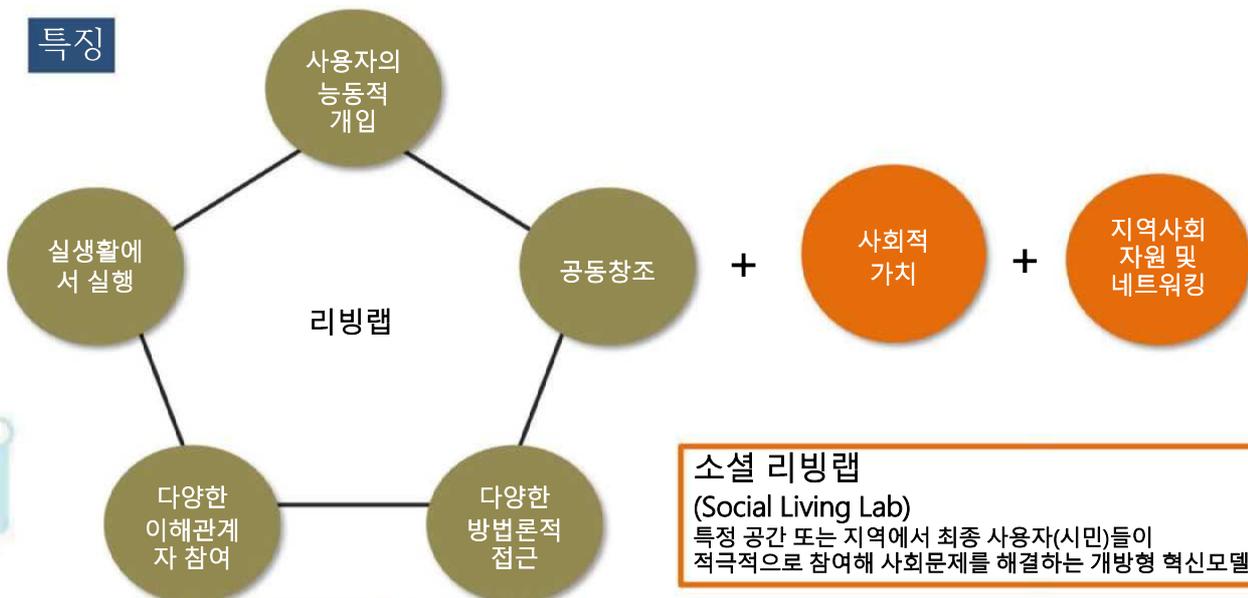
1

국민 2018
해결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소셜리빙랩이란?

시민의 참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해결책을 공동으로 만들어내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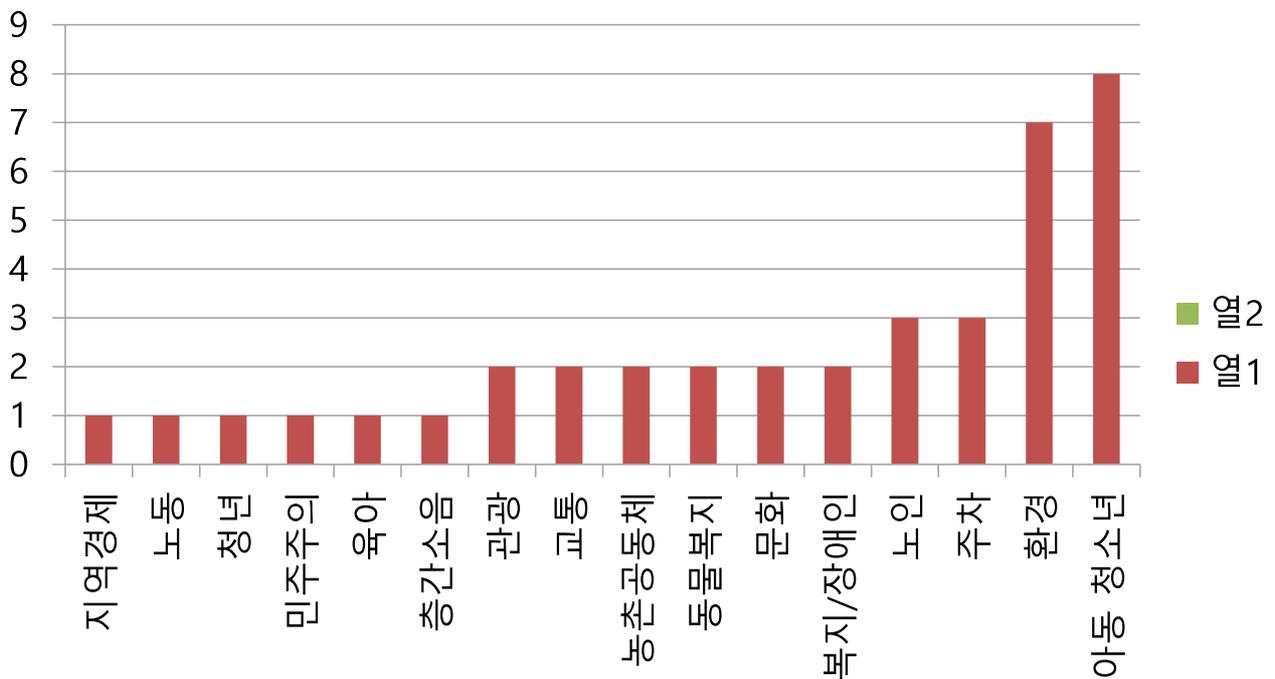


36개 상상테이블 130여명 도민 참여



3

상상테이블 강원지역 주제 분포



4

16개 제안서 제출 (여성25명 &남성13)



5

석사천을 걷다



잡초가 무성해서 활용하기 어려운 클라이밍 시설,
으스스한 야외공연장

전반적인 석사천 경관 관리 부족

6

국민연구자가 되다



삭막한 아파트 공동체

이웃도 만나고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

춘천 석사동, 퇴계동 인구 변화 추이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석사동	3만2793명	3만9873명	4만3889명	3만9565명
퇴계동	2만9841명	3만5488명	4만3848명	4만4909명
합	6만2634명	7만5361명	8만4236명	8만4474명

시민정원을 분양하자!

7

이웃을 만나다



와글와글 테이블 사업 취지를 구체적으로 안내, 홍보, 실행팀 구성

8

공무원을 만나다



- 8/24~ 환경과, 건설과, 사회혁신담당, 경관과 미팅
- ~9/14 춘천시 경관과의 행정적 지원 체계 구축
- ~9/30 하천부지 활용 허가 최종 승인

9

시민들이 함께 만들다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시 연구자 및 활동가 중심

-> 다양한 지역 인적 자원 연계, 시민시행팀 모집

10

마법이 시작되다



https://www.youtube.com/watch?v=1_bfOzPUe_0&index=4&list=PLYA5XI0JKh8pD0YUbZefWnvu4UjqKhKMh

11

시민정원 ‘리틀 포레스트’

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리틀 포레스트』

시민정원분양	인근 지역아동센터 초청 프로그램 '업사이클링 아트'	팝업카페 운영
--------	---------------------------------	------------

2.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리틀 포레스트』

기존 화초와 생태 환경을 살리는 가드닝	환경 메시지를 담은 팻말과 공간 디자인	행사 후 홍보 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 제작	수질 환경 정화를 위한 흙공 던지기
-----------------------------	-----------------------------	---------------------------------	------------------------

3. 이웃이 모이는 마을정원 『리틀 포레스트』

팻말 제작 프로그램	꽃을 활용한 드림캐쳐 만들기 프로그램	지끈을 활용해 바구니와 리스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꽃바구니 만들기 화관 만들기
------------	----------------------------	-----------------------------------	--------------------

4. 문화 예술이 숨쉬는 『리틀 포레스트』

업사이클 디자인이 가미된 가드닝	물감 없이 그리는 친환경 벽화그리기
-------------------	---------------------

12



<p>구역1 표본 정원1 6평</p>	<p>시민정원</p>	<p>구역2 표본 정원2 3평</p>	<p>시민정원</p>	<p>구역3 표본 정원3 3평</p>
<p>클라이밍벽 구역</p>				<p>다리역</p>



5가지 모양
나무 팻말 틀 제작



시민정원사 원예교육



17



18



19



20



21



변화



22



변화



23

BAND 밴드, 게시물과 검색해 보세요

전체글 사진첩

리틀 포레스트 1기
 멤버 76 · 📍 조대
 밴드 설정

20번 '시원이네 작은 정원' 입니다~~
 오늘도 정원에 물주러 출동하였습니다
 몇 주만에 정원의 국화들이 가을가을해졌어요
 정원이 정리되고 더 이상 물 주러 갈 곳이 없을때...
 (벌써 마음 한켠이... ㅠ ㅠ)
 꼬맹이가 '엄마~~ 왜 정원이 없어요?' 라고 물으면...
 ...더보기

변화

엄기웅/꽃누리
 2018년 10월 19일 오후 7:29

아침에는 꽤 쌀쌀하더니... 안개가 걷히고 햇님이 얼굴을 내미니까 금세 은화한 날씨가 되네요.
 다음주 화~수요일쯤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물 주느라 매일매일 틈틈이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한껏 물을 머금으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 온 후 추워지면 걱정일텐데 다음주 주말이 지나서도 평년 기온과 비슷하다고 하니

정영례
 불루(김현아) 꽃을 심으면서 석사전을 둘러보게 되는데 예쁜꽃들이 제법 많아요.
 10월 16일 오전 11:31 · 📍 1 · 표정짓기

김현아 슝 그리고...틀
 정영례 나무 저리가쁜줄 몰랐어요
 저변에 못다보고와서 맘먹고 이쁜꽃들보러 나가보려고요~
 10월 16일 오전 11:32 · 📍 표정짓기

김현아 슝 그리고...틀
 거기 역새달은아이
 달누리풀이라네요

어진맘
 2018년 10월 24일 오후 5:26

저희 정원에서 드디어 봤습니다^^
 장지뱀!!! 그리고 달팽이
 소중한 귀여운 생명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네요. ~~~~~

24

모토 춘천
춘천시민정원 리틀포레스트

춘천시민이 손수 꾸민 석사천 춘천시민정원 리틀포레스트



잡초 무성했던 석사천변이
시민들의 손으로
달라졌어요



잡초가 무성했던 석사천변 일부 부지를 시민들께서 가성으로 분양하여 다량의 정원을 꾸미게 되는 '춘천시민정원 리틀포레스트' 사업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시민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총 50가구 100여 명이였으며 한 가구당 약 3명 정도의 분양을 받았다. 시민에 모두 한 해 교육용 만고 가지 격상 있는 재배로 정성껏 석사천변을 가꾸었다.

이 사업은 생활안전원이 주최하고 희망제작소와 행복마을 교육과 나눔이 주관한 사업으로 춘천시민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사는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했다. 시민으로부터 무제한 석사천 분양비가 제공되는 공간이 아니라 여윌고 같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정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석사천변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된다.

공감 10000



<https://www.youtube.com/watch?v=6pRj2XZdUUw&index=23&list=PLYA5Xl0JKh8pD0YUzbZefWnvu4UjqKhKMH>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빠랑 같이 석사천에서 놀고 싶어요.”

- 시민정원사 5세 구00 어린이

“석사천이 이렇게 멋있었나요? 마지막 날 파티할 때, 저는 유럽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줄 착각이 들었어요.”

- 시민정원사 48세 김00

“올해 석사천으로 날아든 그 많은 벌과 나비는 그동안 어느 곳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내년에도 벌과 나비는 석사천으로 놀러 올까요?”

- 국민연구자 양진운

27



우리는 춘.천.시.민.입니다.

28

Ⅱ부 : 토론 및 질의응답

조성기 (원주한살림 이사장)

권현지 (원주공동육아 소꿉마당 어린이집 교육이사)

우순자 (원주생협 이사장)

김유미 (원주아이쿵 이사장)

김소민 (농업회사법인 일구팔삼 대표)

임소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토론 1>

『지역사회 혁신현장의 여성, 오래된 미래』와 『강원리빙랩 실천사례』의 발제와 지역사회혁신에서의 여성리더십에 대해

조성기 (원주한살림 이사장)

1. 발제문에 대해

천혜란 이사장으로부터 젠더 리빙랩을 하니 참여해 달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는 겁이 좀 났습니다. 젠더 이슈는 여성 리더십이 핵심이고 생물학적 남성은 그간의 저질러오고 지금도 진행 중인 여러 과오로 ‘혼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유아교육 무리에 섞여 일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1970년대 유아교육의 현장은 대부분 남성성이 풍부한 여성들의 마당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초기 천막 유아원설립, 골방 보육학교 운영, 아기동지 개설, 상호부조조합 설립 등의 일을 함께하는 자리에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여성들과 함께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로 여성조합원들이 함께 만드는 ‘원주 한살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전통적 남성성을 발휘할 수도 마음먹은 적도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적어 참가가 어렵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오라고 하셔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먼저 사회혁신과 관련한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하는 신하영 대표와 양진운 교수의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원주가 일부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생소한 리빙랩에 대한 발제이기에 더 감사를 전합니다. 두 발제 모두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참여에 대해 소개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 시대정신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는 협동과 생명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지난 수십년간 그 도시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고 저변이 굳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차별이나 성차별 등에 대해 다른 도시 보다 차별적 사고와 행위를 멀리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영역에는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대표자들도 여성이 많습니다. 시의원들,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한살림의 경우 실무 활동 인력인 22명 중 여성이 18명입니다. 이사도 11명 중 7명이 여성입니다.

발표자들이 여성 리더십을 논하였지만 ‘생물학적 여성’ 보다 사회혁신의 동력으로서의 ‘여성성’ 내지는 여성성이 주요 인자인 ‘양성성’(심리학자 벰(Sandra Bem)이 1970년대에 발표한 이론)에 대해 더 생각하게 하는 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례에 나오는 여성들은 “남성성도 골고루 갖춘 양성성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적 경제영역에서의 여성리더십의 중요성에는 동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주, 역시 여성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성에 따라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고 그에 만족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되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여성리더십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특히 더하다고 봅니다. 돌봄과 같은 일에 특히 여성독박이 심한 상황이 어김없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성과 여성성, 양성성의 특성 비교>

	특성
남성성	용감하고 논리적이다. 자기주장이 강하다. 추진력이 강하고 공격적이다. 시간 공간 지각능력과 수리능력을 갖췄다.
여성성	돌봄 역량이 있고, 감수성이 강하다. 자애롭고, 공감능력이 크다. 양보를 하고 감정적이다. 언어능력을 더 보유했다.
양성성	변화에 대응하는 지능, 창의력, 유연성, 적응력이 높다. 자신감이 있고, 사회적 압력에 복종하지 않는다.

2. 리빙랩으로서의 한살림 이야기

발제문들을 보며 ‘한살림’ ‘원주생협’ 등 원주의 생활협동조합들 자체가 의미 있는 ‘소셜 리빙랩’이자 성공사례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리빙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주의 생활협동조합들은 특히 여성들이 사상과 생활을 일치시켜 성공적으로 확장시킨 성과를 지난 35년 동안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생활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100만 가구를 넘는 조합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시작의 장면에는 장일순 선생님과 지학순 주교님 등 생물학적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조합원들은 대개 여성들이었고 생활협동조합의 실질적 활동 주체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원주 한살림의 경우 1986년에 4가지 품목을 가지고 300명도 안되는 조합원들이 시작하고 만들어가는 사회적 실험장, ‘소셜 리빙랩’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어 이제 조합원가구가 70만이 넘게 되었습니다. 작은 실험이 확장되어 큰 사회적 사업체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는 무함마드 유누스가 1983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설립한 소액대출은행이 27달러에서 시작된 실험이 확장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구충제를 주어 학습력을 높이고 궁극에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회적 책실험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한 살림에 대해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살림은 주로 여성들이 활동하는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전국의 지역한살림 이사장 23명 중 2명만 남성이고, 21명은 여성입니다. 원주한살림의 사무국장은 남성이지만 그는 “한살림에서 저를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조합원은 없어 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떤 능력이 원주 한살림을 지속가능한 활동체이자 사업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역시 그의 속에 있는 여성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주의 생활협동조합에서의 여성들의 성공적 운동성은 발제자들의 사례에서의 설명대로 중요한 성과를 낳고 있고 이에 여성 리더십이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원주의 생활협동조합들의 활동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성리더십의 관점에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3. 팬데믹 이후 지역혁신에서 여성리더십에 거는 기대

팬데믹 이후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법의 통과는 요원하고 2020년 국회에서도 공전하고 있습니다. 엇그제 국회 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점은 새 시대에 여성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구분>

	작동원리	중점	필요한 속성
성장 경제	생존경쟁, 기득권경쟁, 인간과 자연은 자원이자 생산요소 강자는 강해지고, 자연과 사회는 병들게 된다	희소성 성장지상주의 과학기술개발만능 현대화 촉구	남성성
사회적 경제	상부상조 자급자족 자치 생태 공동체의 작동 저성장과 저속도	소박과 소비절제 인간과 자연의 회복, 건강 살림과 돌봄, 총체적 삶 다양성과 순환성, 관계성	여성성

이전의 성장경제에서는 남성성이 중요하게 작동했고 남성 리더십이 기능을 발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 효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 시대에는 소위 여성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4. 생활협동조합 리빙랩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며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은 본래 '열린 실험'을 추구하는 리빙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주도 불평등, 양극화, 돌봄, 기후위기 대응 생활실천, 도시재생, 지역가치의 역외이탈, 생태공동체 구축 등 과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원주시민의 혁신적 발상과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생활협동조합의 주된 조합원들인 여성들의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성의 산실인 원주의 생협들이 앞장서서 혁신적 리빙랩을 구축하고 실천적 대안을 찾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성을 보유한 남성들과 함께 말입니다.

<토론 2>

『지역사회혁신 현장의 여성, ‘오래된 미래’를 보다』와 『강원 리빙랩 활동의 실제와 여성 참여』에 대한 토론문

권현지(원주 공동육아 소꿉마당 어린이집 교육이사)

리빙랩과 젠더에 관한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소했던 리빙랩(Living Lab)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리빙랩은 ‘살아있는 실험실’ 혹은 ‘일상생활 실험실’,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 등으로 불리며, 특정 공간 또는 지역에서 최종 사용자(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모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위로부터의 방식, 즉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역 개발이나 경제성장 중심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자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는 아래로부터의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춘천의 방치된 석사천을 ‘시민정원분양’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정원사가 되고, 이웃이 모여며 특유의 문화로 발전시키는 양상을 살펴보면, 실제 생활 현장의 역동성과 그 변화가 오롯이 느껴졌습니다. 사용자(시민)의 경험과 통찰력을 통해 일상 생활에 기반을 둔 혁신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어 “생태적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기존의 위계적인 가부장제와는 다른, 상호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이 주체가 되어 기존의 권력 관계를 해체하고 생태환경을 회복하는 모습은 들뢰즈-가타리의 리좀(Rhizome)을 연상케 합니다. 리좀은 이항 대립에 의해 발전하는 서열적인 구조와 대비되어, 수평으로 덩굴처럼 뻗어 나가는 관계로서, 다수성의 지배체제에서 복수성의 지배체제로의 이동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위계적 사회 관계였던 가부장제에서 탈피하여, 여성이 회복의 주체가 되어 뿌리줄기와도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곳은 다양한 분야가 있겠으나,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원주 공동육아 소꿉마당 어린이집 또한 잘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과 같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에는 가족 내 여성의 전담으로 희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사회, 경제 진출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돌봄에 대한 관심도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돌봄의 비용과 서비스의 질, 돌봄 노동의 처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사회적 돌봄은 돌봄이 '엄마'의 전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담당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돌봄이 여성의 당연한 자기희생으로 간주되던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변화된 양상입니다.

사회적 돌봄을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곳으로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들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가족 내 여성과 남성, 시장, 국가, 그리고 이웃 즉 마을이라는 영역이 모두 참여하여 상호 간의 신뢰와 친밀성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공동육아 운동은 1978년 어린이 걱정모임에서 출발하여, 야간 해송보육학교, 해송유아원을 거쳐 1991년 공동육아연구회, 1994년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이어집니다. 1996년 사단법인 공동육아연구원이 설립되었고, 이후 2001년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하 공공교)이 설립되는데, 공공교에서는 공동육아 제도의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사업, 재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고민에서 시작한 공동육아는 '내 아이뿐 아니라 우리 아이를 함께 잘 키우자'에서 더 나아가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유일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소꿉마당은 1998년에 설립되어 20년이 넘었습니다. 2006년도에 현재 위치한 판부면 서곡리로 터전을 이전하면서, 소꿉마당을 기점으로 소꿉 출신 조합원들이 둘레둘레 모여 사는 소꿉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시작한 관계는 점차 확대되어 마을공동체로 확장되었고, 현재는 '서곡교육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닮은 아이들'을 슬로건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며 자연과 인간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은 '리빙랩'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백운정잇길 14-35라는 공간을 직접 손질하고, 교사 채용과 회계, 홍보, 조직 운영 등에 부모들이 참여하여 역동적이고 수평적인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더 많은 '언니'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돌봄의 현장에는 오히려 '언니'들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꿉마당에서는 '언니'들뿐만 아니라 '오빠'들도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젠더 다양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높은 만큼 '성 역할'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령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한다거나, 책을 읽어주고, 시설을 정비하고, 놀이터를 직접 만드는 등의 행위들입니다.

저는 리빙랩과 젠더에 관한 오늘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참여'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서의 참여, 젠더 담론 내에서의 참여 등이겠습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도 ‘참여’는 중요한 키워드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바쁜 오늘날,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발표자께서는 사회적 경제의 현장에서, 생활운동의 현장에서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 내고, 독려하며 지속시킬 수 있는지,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양한 이들이 참여한 현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두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토론 3>

우순자 (원주생협 이사장)

먼저 유익한 내용을 소개해 주신 신하영 대표님과 양진운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두분의 발제 내용에 대해 많은 공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더 많은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의 사회적 경제, 생협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해보면 원주에서 생협운동이 시작된지 30년이 넘었고 이제는 왕성한 활동과 지역에서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아쉽게도 아직 만족할 만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주부들이 주축인 소비자들이 모인 협동조합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여성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고 사회적 경제영역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활동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 확산에는 미흡함이 많은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이는 나의 가치를 불분명하게 인식하거나 또는 나의 소비가 단순한 소비가 아닌 지역자원순환운동, 환경운동, 착한소비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단순한 소비의 측면만을 인식한 소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빙랩에 대한 생협 측면에서의 관심은 어찌면 당연한 상황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여성 활동가들이 있는 생협의 입장에서 몇가지 생각해 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에 맞는 여성 리더를 발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진영에는 수많은 교육과 강좌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된 교육과 강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주에서 접목 가능한,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스러운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연구자와 활동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필요에 의한 연구나 계획은 세워지고 있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여성 활동가를 양성하는 실질적인 현장접목은 부족했고 그래서 지역의 활동가를 배출해 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주부들의 착한 소비로서의 전환, 착한소비를 함으로써 지역의 먹거리 순환과 더불어 파괴되는 생태계 복원, 일회용품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으로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포장재 줄이기, 지역먹거리를 이용하고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등 소비만으로 지역에서 나의 역할과 지역의 중심이 바로 시작된다는 의식의 전환이 이뤄진다면 소비자도 여성의 리더도 현장의 활동가들도 더불어 양성되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론 4>

사회적 경제와 리빙랩 - 여성 사회진출의 디딤돌

김유미 (원주아이쿱생협 이사장)

두 분 발표자의 발제를 보며, 사회적 경제와 리빙랩은 그 작동 원리와 추구하는 가치의 측면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남성주의 관점과는 다른 시선을 요구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치·사회적인 변화들이 있어 왔지만, 우리는 남성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가 지닌 한계가 무엇인지를 곳곳에서 확인하곤 합니다. 가부장제, 수직 권력화, 위계화, 성장 지상주의, 경쟁 중심 사회라는 남성 중심의 지배적인 구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불평등과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점점 더 다양해지는 사회문제들이 우리 삶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마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 것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와 리빙랩은 여성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주의 사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열린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자율과 평등을 지향하며, 연대와 협력에 기반하여 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여성주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여성주의 사회는 여성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지배적 위치 즉 수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남성에게도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자신의 욕구를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연구공동체인 리빙랩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여성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에 둘 때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리빙랩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개발자, 이용자 그리고 행정가들이 열린 마음으로 협력할 때 우리가 정말 원하고 사용 가능한 기술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는 연대와 협력의 사회를 이루는 소중한 기반이 됩니다. 리빙랩은 사회적 경제가 표방하는 가치와도 일맥상통하며, 사회적경제와 리빙랩의 유기적인 만남은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한 것도 사회적 경제가 여성주의적 가치와 문화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에서 ‘주류 사회의 장벽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제한되어 사회적 경제에 다수가 진입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은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사회적 경제와 리빙랩의 적극적인 결합은 연구 성과물의 상용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시도라 생각합니다.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현실화하려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사회적 경제는 개발된 사회적 기술이 공익성을 지키면서 확산, 보급되는데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원주아이쿱생협의 입장에서 리빙랩은 아직 낯선 용어이며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지나온 활동 속에 리빙랩과 유사한 경험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발달장애 아이들과 가족을 지원하는 ‘드림하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상지대와 협력하여 발달장애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의 문제로 고민하던 원주아이쿱 조합원들의 소모임에서 시작하여 아이쿱 씨앗재단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학습모임,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 만들기에 나선 모든 과정은 리빙랩을 통한 사회문제 해법 찾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에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상지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등)을 네트워크로 만들어 냈고, 타지역의 공동 사례조사를 통해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적인 해법들을 찾아내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리빙랩과 그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소셜 비즈니스로서 사회적 경제의 결합은 서로가 견인차가 되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를 돌봄이나 사회서비스, 생태 등 특정 영역에 제한할 경우 여성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다양한 도전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빙랩 역시 연구주제와 관심이 특정 분야에 편중될 경우 비슷한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전 산업 분야에서 활성화한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여성주의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 모델의 구상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돌봄과 사회서비스, 커뮤니티는 매우 중요하고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은 다양하며 모든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빙랩 활동도 산업 전 분야에서 촉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수준에서는 돌봄과 커뮤니티 문제 등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지향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주의 가치에 기반 연구 단위 즉 리빙랩을 구성하겠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리빙랩을 통해 기술 개발이 소수 기득권의 자본 축적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와 기회를 넓혀 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경제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전 산업분야에서 대안적인 경제사회 활동을 촉진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리빙랩도 사회 전 분야, 모든 산업 영역에서 여성들이 대안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기회의 장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변화는 결코 여성들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청년 등 모두가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그러한 경제 모델과 연구 단위의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에게 아주 이롭습니다. 차별 없이 모두에게 열린 사회가 된다면 그때 우리 여성들은 비로소 세상의 절반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한과 자리를 부여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론 5>

일상 속 실험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김소민 (농업회사법인 일구팔삼주식회사 대표)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여성 이사를 모시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뉴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의 도입이 그간 소위 '방탄유리천장'이라 불리우던 조직 문화를 해소하고 여성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훈훈한 바람이 국내 기업에만 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농산촌에도 불어오길 바랍니다. 두 분 발제에 이어 제가 경험한 일상생활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내다.

홍천 고양산 아람마을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산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임산물을 가공하거나 사업모델을 만드는 여느 공동체와는 달리 산촌의 문화가 사라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촌의 토속음식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을에서 비교적 젊은 60대 청년들이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구전으로 내려오던 다양한 토속음식들을 기록으로 남겨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를 만드는 데 참가하신 어르신들을 셰프로 초빙하여 음식을 복원하고 이 모든 과정을 작은 책자와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이 마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활동이 어떻게 해야 더 가치 있게, 더 확장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라면 전문가를 모셔와서 마을에서 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평가받고 보완점을 찾아야 하는데, 토속음식 전문가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홍천에서만 만들어 먹던 난치나무 국수나 두드레기 적을 평가할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마을은 과감히 기존의 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우리 마을의 토속음식은 우리가 가장 잘 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토속음식복원 인정서'를 참가자들에게 수여하고 더 많은 구전 레시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없어서 우리의 토속음식을 검증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토속음식 분야의 기준을 마을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례는 전통 농업사회에서 노동으로만 평가되던 여성 농업인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작자가 직접 구현'하는 토속음식 복원자로요.

꼭 리빙랩 프로젝트에 지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리빙랩의 형태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 통념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던 여성 농업인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굴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성의 관점으로 청년 농업인 문제 해결 실마리 찾기

4H 소속 원주 여성 청년 농업인들이 진행한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합니다. 이 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삼삼오오 청년 인문 실험에 지원해서 지방소멸 문제를 겪는 지자체에서 청년 문제, 그 중에서도 청년 농업인의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재미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농(임)업인이 전체 인구의 1% 이하인 오늘날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은 '생활비를 주는 창업지원사업으로 수십억을 푼다'였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원주에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내놓은 가설은 '재미있으면 온다'였습니다. 오늘날 농업, 지역에 대한 콘텐츠들은 암울하고, 어렵고, 고달픉니다. 다양한 작물의 생산 기술을 주입시키지만, 시골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만 지나도 달라지는 바람결이 있는 지방에서 자연감성을 즐기는 즐거움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웹툰작가들과 소통하면서 '농사짓느라 힘든 농촌' 대신 '농사짓다 보면 보이는 자연'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짧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두 가지 사례를 공유 드렸습니다. 둘 다 bottom-up 형태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내거나,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회적 경제와 생활운동에서의 여성 리더십은 경계를 넘나들며 이종 분야의 지원사업이나 아이템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토론 6>

임 소 연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우선 제 1회 리빙랩과 젠더 포럼에 이어 제 3회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1회 포럼이 리빙랩의 존재 자체에 눈을 뜨게 해 주었다면 이번 3회 포럼은 지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리빙랩을 만나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신하영 대표님과 양진운 교수님이 미리 주신 자료를 통해서 리빙랩에 숨을 불어 넣는 여성들 그리고 여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리빙랩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생생한 사례와 함께 리빙랩과 여성의 문제를 가시화해 주신 두 분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하영 대표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입니다.

본 발표는 특히 리빙랩의 여성 참여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발표자는 리빙랩 "언니들"을 발굴함으로써 현장에서 활동 중인 리빙랩의 여성주체들의 행동양식과 운동전략을 의미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맥락에서 지금까지 주변화되었던 안전과 건강 등의 문제를 재평가하고자 합니다. 리빙랩과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들의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개별 사례로 흩어져 있었다는 발표자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발표자의 연구는 이미 리빙랩을 이끌어온 여성들에게 확장가능한 서사를 부여하고 그들의 활동을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주의와 생태주의 그리고 혁신모델로 해석하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학술 담론화 및 이론화를 위해 에코페미니즘과 구술사 방법론을 도입하고 있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둘 다 최근에 새롭게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이론과 방법론인 것으로 알고 있고 리빙랩의 "언니들"을 연구하는 데에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발표는 리빙랩과 젠더 연구를 여성주의 사회적 경제 연구의 맥락에 위치짓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내부"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과의 긴장 관계가 흥미롭습니다. 특히 김주환(2015)을 인용하여 "사회적 경제가 여성친화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이 내포하는 난처함"을 언급하셨는데 이 난처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궁금증의 근원에는 여성주의 혹은 젠더 관점의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대개 어떤 분야에서든 여성주의적 접근은 주변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리빙랩과 젠더 연구가 리빙랩 연구에서 이런 경향을 따르지 않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빙랩과 젠더 연구가 돌봄과 살림을 담당하던 여성들의 공공진출 정도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즉 돌봄과 살림이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영역을 부각함으로써 젠더 본질주의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최근 페미니즘 혹은 젠더 이론에서 교차성이나 젠더 이분법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리빙랩과 젠더 연구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발표자와 추후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진운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입니다.

무엇보다 춘천에서 일어난 “마법”같은 리빙랩 사례를 생생하게 보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춘천시민들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앞선 발표자(신하영 대표)가 “한반도의 모든 지역이 포용과 혁신이 필요한 현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현장을 실감할 수 있었던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자가 과학기술학 연구자라서 그런지 발표자가 보여주시는 현장 속에서 “상상테이블”이라는 사물의 역할이 눈에 띄었습니다. 추상적인 리빙랩이라는 개념이 사진마다 등장하는 “탁자”와 그 탁자 위에 종이들, 그리고 탁자 주위로 둘러앉은 지역 시민들이라는 존재들로 가시화되어 리빙랩의 구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전에 전달받은 발표 자료 속에서는 제목과 다르게 강원 리빙랩에서 활동하신 여성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여성들의 참여 흔적을 엿볼 수 있어 그 부분들을 위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제안서 제출에 참여한 분들 중 여성이 남성이 비해 2배 정도 많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경로로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상테이블에 참여하셨는지 발표를 통해서 혹은 답변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상상테이블 강원 지역 주제 분포”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양한 주제가 나왔지만 “환경”과 “아동, 청소년”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이 결과로 추측컨대 그리고 발표 자료에 등장하는 사진과 정보로 미루어 보아 ‘아이가 있는 부모’의 참여가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아한 점은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치고는 여성 관련 이슈에 대한 주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 관련 이슈 중에서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과 관련한 주제가 없다는 사실이 인상적입니다.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셜 리빙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리빙랩”과 차별화하는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쓰신 것인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혹시 과학기술 연구개발/혁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셜” 리빙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면 기존 리빙랩에서의 문제가 소셜 리빙랩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혹은 기존 리빙랩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어떤 점이 새롭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리빙랩에서 어려움으로 지적되어온 것 중 하나는 (시민을 사용자로 보는 데에 익숙한) 과학자나 공학자의 전문가주의인데 이런 문제가 소셜 리빙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지요? 나아가 전반적으로 소셜 리빙랩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강원 리빙랩의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상테이블 아이디어 좋다.

소셜 리빙랩....과학기술 전문가는 어디에?

<< 총 평 >>

리빙랩과 젠더포럼, 2021년 포부와 전망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리빙랩과 젠더 포럼, '21년 포부와 전망

2020년 12월 15일

성 지은 (STEP1)

제1회 포럼 문제 인식

- 리빙랩 활동에서 왜 멋진 여성이 많을까?
 - 리빙랩 활동에 대해 왜 공감하고 재미있어 할까?
 - 리빙랩 활동에서 여성들이 왜 성과를 낼까?
 - 리빙랩 활동을 통해 차기 여성 리더를 키울 수 있을까?
 - 시대에 맞춰 여성 역량을 새롭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리빙랩을 통해 기존 여성 활동을 보다 고도화시킬 수 있을까?
 - 리빙랩을 통해 여성들의 연대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까?
 - 리빙랩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 리빙랩 활동을 통해 젠더 혁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

제2회 포럼 문제 인식

-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에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누가 참여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 리빙랩 활동상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 연대 및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 교육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 차세대 주자와의 교류 및 협력은 이뤄지고 있는가?
-

제3회 포럼 문제 인식

-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리빙랩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 지역사회혁신,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에 왜 주목해야 하는가?
 - 지역사회혁신 현장에서 여성이 참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토대는 무엇인가?
-

2021년 포부와 전망

1. 스토리 및 내러티브 작업

- 리빙랩 야부리 작업
 - 정책 좌담회 촬영과 기사 작성
 - 언론 등을 통한 활동 소개 및 시리즈로서 사설 작성
 - 다양한 성공 사례 발굴과 새로운 모델 탐색
-

2. 논문 등의 학술 작업

- 학회 내 세션을 구성하여 사례 발표 및 경험 공유
 - 사례를 기반으로 정책 이슈 보고서 및 논문 작성
 - 관련 연구팀 구성과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론화 작업 진행
 - 오픈리빙랩데이즈 등 해외에서의 한국의 경험과 사례 발표
-

3. 포럼 주제의 심화 및 확대-1

- 자원순환경제, 공유경제, 돌봄경제 등 지속가능한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 주체로서의 여성 역할
 - 체인지메이커로서 젊은 여성의 리빙랩 활동 경험 공유와 경로 탐색
 - 리빙랩 활동을 통한 여성 시니어의 자존감 육성 및 새로운 노년상 탐색
-

3. 포럼 주제의 심화 및 확대-2

- 코디네이터/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여성 리빙랩 활동 점검과 과제
 - 영역별, 지역별 여성 리빙랩 활동 고도화를 위한 연대 및 협력 과제 발굴
 - 여성 리빙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 도출
-

4. 관련 지역 및 기관과의 협력 확대

- 서울 → 마산 → 원주 → ?
 - 온랩,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지역별 리빙랩네트워크 등 리빙랩 활동 주체 및 기관과의 포럼 개최
 - 과학기술학회 등 관련 학회와의 협력
 - 이로운넷, 라이프인 등 언론과의 공동 작업
-

과학기술, 사회혁신, 리빙랩 네트워크 블로그

- <http://blog.naver.com/sotech2017>



한국리빙랩네트워크TV KNoLL

<https://www.youtube.com/channel/UCYMDRg3zhEJsw6NimMqx5vg>

